

JB 도서관 나눔 캠페인

JB전북은행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책장, 도서 등을 지원해주는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도서관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부해주신 도서는 기부자님 명의로 JB희망의 공부방에 전달됩니다.

- 장 소 :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 공연장 입구
- 기 간 : 2014. 5. 15(목) ~ 18(일)
- 종 류 : 초·중·고등학생이 읽을만한 책

기부천사가 되어주세요.

기부 천사명	
학교 / 주소	
연 락 처	
기부 도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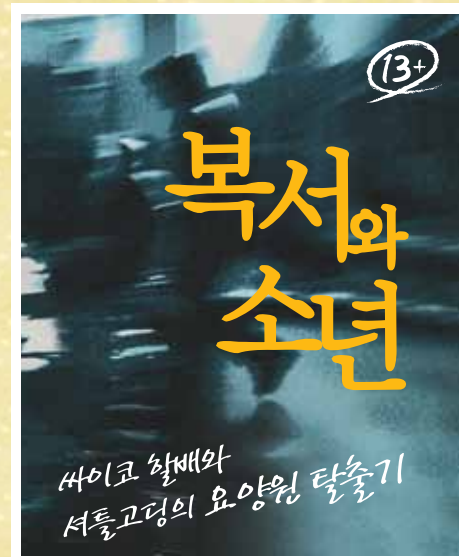
*도서관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 중 10분께
2만원상당 아이스크림상품권 추첨(5. 20 발표)



Since 1969
JB 전북은행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 다섯번째

연극 <복서와 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힐링 드라마



공연일시 2014. 5. 15(목)~16(금) 오후 5시, 오후 7시 30분
2014. 5. 17(토)~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장소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

관람안내

단체관람

- 공연일시 : 2014. 5. 15(목) ~ 16(금) 오후 5시(80분 공연)
- 관람대상 :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1,000명
- 관 람 료 : 무료
- 신청방법 : 전북은행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14. 4. 21(월) ~ 4. 25(금) / 선착순

일반관람

- 공연일시 : 2014. 5. 15(목) ~ 16(금) 오후 7시 30분(80분 공연)
2014. 5. 17(토) ~ 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관람대상 : 중학생 이상
- 관 람 료 : 무료(좌석권 소지자에 한해)
- 좌 석 권 : 2014. 5. 7(수)부터 전북은행 전지점에서 선착순 배부(1인당 최대 4매)

관람시 유의사항

-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입장바람
- 공연시작 후 입장 불가
- 예비 좌석권(매회 50명) 소지자는 공연시작 후 잔여좌석에 한해 관람 가능
- 공연장에 음식물 반입은 안됩니다.

- 문의 : 전북은행 지역공헌홍보부 ☎ 063-250-7495, 7496
-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참고하세요.



남문철



이성욱



김태경



서인권

왕년엔 세계 챔피언 지금은 그냥 할배

- 별 명 : 붉은 사자
- 나 이 : 7학년 0반
- 거주지 : 요양원 독방
- 특 기 : 수건 개기, 악 던지기
- 사랑이란? : 노란사쓰

봉사활동도 대신하는 찌질이 고딩

- 별 명 : 셔틀
- 나 이 : 2년 2개월만 버티면 성인
- 취 미 : 혼자 중얼거리기
- 이상형 : 편의점 누나
- 사랑이란? : 장미 한 송이

작품소개

■ 연 출 : 김민기(아침이슬 작곡가)

■ 제 작 : 극단 학전

독일 청소년 연극상 수상작(1998년) <복서의 마음(Das Herz eines Boxers)>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번안, 연출한 작품인 <복서와 소년>은 고독한 노인인 학교폭력으로 방황하던 소년이 만나 우정을 쌓고, 절망을 탈출해나가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 기획의도 및 작품소개

노인과 소년의 만남

70세 노인과 17세 소년이 만났다! 연극 <복서와 소년>은 요양원 독방에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붉은 사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 '셔틀'이 찾아오면서 시작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노인과 소년이 만들어나가는 우정과 희망을 그린 연극 <복서와 소년>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노인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나도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입을 닫고 사는 무뚝뚝한 노인과 겉으로만 명랑해 보이는 소년의 좌절과 상처는 제법 크다. 가짜로 파킨슨병 환자 행세를 하며 요양원으로 들어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는 노인과 언제나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소년은 '인생 낙오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벽을 쌓고 외롭게 사는 삶을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이다. '셔틀'은 '붉은 사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전까지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을 좌절로 밀어 넣은 '짱'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까지 느끼며 변하기 시작한다. 무료한 일상에 지친 '붉은 사자'는 삶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소년이 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 연극 <복서와 소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외톨이들이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시놉시스

왕년의 복싱 챔피언 노인 '붉은 사자'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붉은 사자의 방에 고등학교 1학년 '셔틀'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페인트칠을 하러 오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진다. 셔틀은 양로원 탈출을 꿈꾸는 붉은 사자의 오래된 물건들을 팔아 주며 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